

임시선별검사소, 지역감염 차단 역할 '톡톡'

광주시민 10명 중 1명 이용 누적 15만건 돌파, 추석 연휴 선제검사 실시 확진자 5명 발견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역감염 차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지역사회 감염전파 사전 차단을 위해 문을 열었다. 개소 이후 9개월간 광주 시

민의 10.6%에 해당하는 15만3,000여명이 시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중 0.24%인 36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22일 기준 광주시 전체 코로나19 검사자 183만2,000여명의 8.3% 수준이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5일 동안에는 7,524명의 시민 및 고향을 찾은 방문객이 검사를 받아 하루 평균 1,505명이 시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았다.

시는 시청 야외 음악당에 초대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휴일 없이 매일 밤 10시까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결과를 다음날 오전 중 신속하게 검사자에게 문자로 통보하고 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면서 퇴근 후 검사가 필요한 직장인, 야간 검사가 필요한 시민 등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검사 인원도 300명대에서 최근 2,500명대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

임시선별진료소가 들어선 시청 야외 음악당에는 지난 5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그늘막 설치하고 2m 거리두기 스티커 부착, 우천 대비 시설 보강 등 시민 편의 시설 공사와 시설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시청 직원 총 2,410명과 의료진 97명, 자원봉사자 등이 휴일을

반납하고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에 나서 피로도가 심한 상황을 감안해 피로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방문자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KTX 역, 톨게이트, 버스터미널 등 도내 임시선별검사소 13곳에서 연휴 기간 동안 모두 3만3,345건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5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

광양·보성·함평·장성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1만910건을 검사해 함평천지 휴게소에서 2건을 밝혀냈다.

나머지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에서는 2만2,435건의 검사를 통해 영광 톨게이트에서 1건, 순천역에서 2건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전남도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오는 30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양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 방문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위해 임시 검사소를 마련해 운영한 것이 코로나19 사전 예방 효과를 거뒀다"며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김용현 기자

여수 연도·신안 옥도, '가고싶은 섬' 선정

5년간 50억 지원...마을경관 개선·주민역량 강화 등

전남도는 여수 남면 연도와 신안 하의면 옥도를 2022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신청 3개 시군 5개 섬에 대해 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섬 고유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주민 참여 및 시군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여수 연도와 신안 옥도에는 이들 섬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을 통해 생태 문화관광자원화, 마을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와 소득사업 등을 위해 1개 섬당 5년간 50억 원(1년에 10억 원씩)을 지원한다.

연도는 244가구, 41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아름다운 섬이다. 102종의 주요 식물이 자생하고, 동백나무, 뽕나무 군락지 등 자연환경과 생

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섬 외곽으로 '바다 위 바위 박물관'이라 할 만큼 기암괴석의 해석이 발달해 천혜의 절경을 자랑한다. 산호초가 널리 분포한 아름다운 수중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암석마다 전해지는 설화와 전설을 '연도 열두 가지 이야기'로 주민들이 정리한 이야기의 섬이기도 하다.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낸 섬이라는 전설을 품고 있으며 연도의 자연산 방풍과 해녀들이 직접 잡아 올리는 전복, 홍합을 비롯해 미역, 감성돔 등 풍부한 먹거리를 품고 있어 보물섬으로 불린다.

옥도는 59가구, 109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넓고 깨끗한 갯벌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신안다이아몬드제도(자은-암태-팔금-안좌-장산-상태-하의-도초-비금)의 가운데 위치해 빼어난 해양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일본 해군기지, 목욕탕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기상관측소 등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근대역사탐방이 가능하다. 당숲 등 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섬 고유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관광객이 일출에서 벗어나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정감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2개 섬에 내년부터 예산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섬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인 2015년 6개 섬을 선정 후 매년 2개씩 추가해 올해까지 18개가 선정됐고, 이중 10개가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김용현 기자



동구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협약 동구는 23일 구청 상합실에서 다함어울림 협동조합, ㈜상상오, ㈜필름에이치 등 5개 업체대표와 '뚝모아 해결 with 동구사회적경제 프로젝트협약'을 체결했다. /동구 제공

첨단장비 활용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시, 27일부터 33일간 에너지시설 등 532곳 점검

광주시는 27일부터 33일간 광주시, 자치구, 공사공단 직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시설, 교통시설 등 7개 분야 532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대상은 지난해 10월 시민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최근 중대사고 발생 시설을 반영해 위험시설 및 핵심 시설 중심으로 선정됐다. 전체 시설에 대해 민간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고층건물이나 교량과 같이 접근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점검한다.

시는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100명으로 안전지원단을 구성해 민간합동점검을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전주기 재난안전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 급경사지, 교량 등 시설 20여개소의 경우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결함이나 긴급한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은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이행력 확보

를 위해 대상시설 전체에 대해 점검년도, 점검방법, 점검결과 지적사항 등을 이력관리하고, '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실태, 점검자 실명제 운영, 지난년도 안전대진단결과 사후관리실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 자격증을 소지한 시민들로 시민안전관찰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지원하면서 다중이용업소 대상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전개해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도 병행해 추진한다.

윤건영 시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의 기틀이 다져졌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에 김상묵씨 내정

김대중컨벤션센터 차기 사장에 김상묵(61·사진) 전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상임이사)이 내정됐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5명의 공모자 가운데 서류 심사 후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자로 복수추천된 김 본부장 등 2명 가운데 김 본부장을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김 본부장은 광주살레시오교,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코트라에 입사, 글로벌기업협력실장, 파트너링지원실장, 서비스산업실장,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상임이사급인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아왔다.

호주 멜버른, 스위스 취리히, 말레이시아 팔라루푸르 무역관장도 지냈다. 광주시의회는 10월14일 김 내정자를 대상으로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후 10월18일 정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3년 임기에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자본금 1,766억 원을 광주시가 전액출자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4개 분야를 아우르는 호남 최대 마이스(MICE) 산업 전문기관이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모집

자금 우대 등 맞춤형 지원

광주시는 다음달 22일까지 명품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명품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성장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100여곳을 발굴·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다.

모집대상은 공기업 기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으로 총 39개사다. 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접수는 광주테크노파크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11월말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스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할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배성 302-0316-649511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두고들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